

‘새로운 간판문화 창달’ 전광판에 풀컬러 LED

- (주)컴텔싸인

이우규 | 대표이사



"저희 컴텔싸인은 새로운 광고문화창작이라는 큰 가치를 내걸고 설립된 벤처기업입니다. 무한한 창조정신으로 무장된 컴텔의 젊은 인재들이 모여서 차세대 디지털 영상 매체인 전광판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주)컴텔싸인은 21세기 디지털 경제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쟁력 있는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 모두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자신을 개발하고 전문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제품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주)컴텔싸인을 주목해 주십시오."

"개별막대 16개의 단위 픽셀로 구성된 FX3 막대형 LED 전광판은 LED(Light Emitting Diode) 모듈을 사용한 옥외용 전광판으로 컴퓨터와 주변 장치를 이용하여 다양한 규격과 형태, 색상, 문자 및 그래픽을 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이 전광판은 시민을 위한 뉴스전달, 공지사항, 각종안내, 시정소식 및 홍보용 광고, 캠페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의하여 어떠한 형태의 그래픽과 문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표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광(電光)은 원래 번갯불, 번개를 말하는데, 또 전력으로 일으킨 빛을 지칭하는데 전등의 불빛 따위이다. 그래서 전광석화(電光石火)라 하면 번갯불이나 부싯돌의 불이 번쩍이는 것처럼, 몹시 짧은 시간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후에 변하여 '매우 재빠른 동작'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 되었다.

전광판(電光板)은 전광 게시판의 준말인데, 많은 전구(電球)를 배열하여 그것을 켜다 껐다 함으로

써 문자나 그림을 나타내도록 만든 게시판을 말한다. 요사이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광 게시판에 문자

로 나타내는 뉴스가 전광뉴스(電光 news)이다.

(주)컴텔싸인은 디지털 정보통신 시대의 리더로서 LED분야 및 관련 응용기술을 바탕으로하여 21

세기의 세계적인 LED전문 공급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아래 10년전인 지난 1996년 5월에 설립된 디지털 관련 기기제조 전문기업이다.

(주)컴텔싸인은

LED Display기반 기술 및 관련 제품 Solution과 관련한 노하우와 제조 통합능력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미래를 위한 끊임없는 기술개발',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 그리고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경영'의 가치 아래 "우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자신 만만한 일성이다.

"앞으로 모든 간판은 전광판으로 바뀝니다. 설치의 용이성, 저렴한 가격 그리고 뛰니뛰니해도 노상에서 사람의 눈에 잘 띈다는 것입니다." 이사장의 전광판에 대한 신념도 대단하다.

"컴텔싸인이 개발한 신개념 막대형 풀컬러의 전광판 - FX3 "이것은 우리 자랑이자 자존심입니다. 보급형 전광판으로 우선 손쉬운 사용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키보드 혹은 리모콘 방식중 채택하여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리모콘은 천지인 입력방식으로 더욱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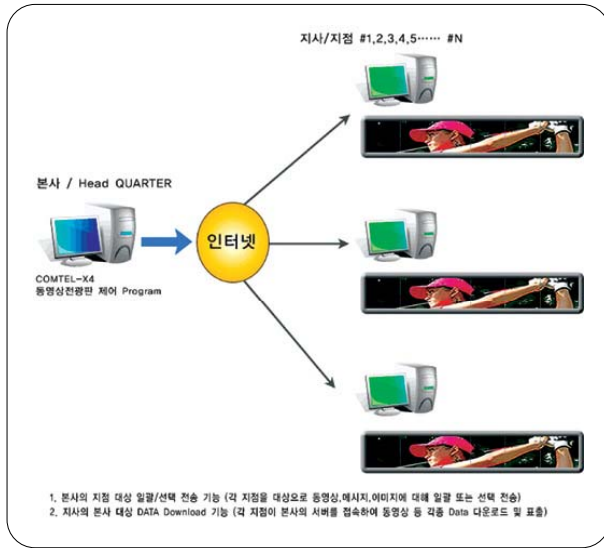
둘째로 간편한 설치시공을 들 수 있는데, 기존 제품보다 얇고 가벼우며 전원만 연결하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셋째로 최신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컴텔싸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최신 기능을 인터넷으로 다운 받아 편리하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100% 완전방수처리로 옥외전문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아크릴을 없애 결혼 현상을 근본적

으로 차단했다.

"마지막으로 영업시간 시작/종료/예약시 개폐점 벨소리 기능과 더불어 전광판이 자동으로 on / off 됩니다." 편리한 간판 문화의 시작을 보는 것 같다.

이사장의 자기제품에 대한 자신감은 대단하다. "우리의

소형 전광판은 동영상 시대의 풀컬러 동영상 전광판으로 앞으로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세계최초 2단 리모콘 기능, 국내 최초 풀컬러 동영상 새로운 애니메이션 탑재, 명암조절이 가능한 1,600만 풀컬러 구현, 인터넷만을 활용한 원격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광고의 시대, 간판의 시대입니다. 곧 전광판의 시대입니다. 효과적이고 저렴하며 극히 시각적이기 때문에 분명코 전광판이 광고와 간판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간판문화 형성과 창달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사장의 패기에 찬 마지막 말이다.